

칼빈신학의 첫 개요 ¹⁾

칼빈의 올리베탄 성경 신약 서문 (1535)

The first outline of Calvin's theology - Calvin's preface to the
New Testament in the Bible of Olivétan (1535)

번역:권 연 경
(신약신학)

제 1 절	제 6 절	제 11 절
제 2 절	제 7 절	제 12 절
제 3 절	제 8 절	제 13 절
제 4 절	제 9 절	제 14 절
제 5 절	제 10 절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목적(End)이 되시는
가=1543]

1) 참고를 돕기 위해 부록으로 영어 번역을 첨부하였다 (이하 “부록”으로 지칭). 절과 줄에 번호가 달려 있다. 본문은 Calvin (1958)과 Calvin (1963)에서 나온 것으로, 뒤의 것이 더 정확하다. [우리말 번역은 원래 붙여가 아닌 이 영역본을 기초로 한 것이며, 본역의 성격상 줄 번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생략하였다—역자 주]

제 1 절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만물의 조성자로, 이미 그의 창조물을 통해 우리의 흠모를 받고도 남을 만한 분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셨던²⁾ 창조주 하나님께서³⁾ 그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인간은 독특한 탁월함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⁴⁾ 그의 영광의 빛이 사람 속에 밝히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제 인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⁵⁾,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위를 바라보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⁶⁾ 지으심을 받았던 본래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증스러운 인간은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여 경솔하게도 선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그에게 오게 되었는지 망각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⁷⁾ 또한 터무니없는 배은망덕함으로 자신을 만드신 분이요 이 모든 호의의 근원이 되시는 이에 대항하여 교만함으로 자신을 높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파멸에 처하게 되어 그가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에 가졌던 모든 위엄과 탁월함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는 탈취를 당하여 그의 모든 영광을 잃었으며 그에게 맡겨졌던 모든 은사로부터 소외되었다. 이는 그를 자기의 교만함 속에서

2) 롬 1:20 [원 각주 3]

3) 롬 1:25 [원 각주 2]

4) 창 1:26; 참고 행 17:28

5) 롬 1:21

6) 롬 1:21

7) 행 14:17

혼란스럽게 만드시려는, 또 그가 스스로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 곧 스스로는 허망한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능력의 주님께서 도움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아무 것도 아니었으리라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⁸⁾

제 2 절

그러므로 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에게서 지워진 것과 그가 자비로 베푸신 은사들이 인간 속에 더 이상 없는 것을 아시고⁹⁾ 인간을 미워하고, 또 인간이 그의 만드신 존재임을 부인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본래는 인간을 보내어 자신을 즐겁게 하며 또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자 계획하셨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와 반대로 인간을 멸시하며 혐오하시되, 이전에 자신을 기쁘게 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불쾌함이 되고,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이 그를 진노하게 하며, 자애로운 부모의 관심으로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혐오와 후회의 눈으로 바라보기까지 하셨다. 요컨대 인간은 마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원수요 적이 된 것처럼 그의 소유, 그의 행위,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삶을 통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¹⁰⁾ 이러한 혼란 속으로 떨어진 후, 인간은 저주받은 씨가 되어 생육하였으며, 자기와 같이 사악하고 타락했으며,¹¹⁾ 허망하고, 모든 선한 것은 빼앗기고 악한 데만 부유한 그런 인류를 낳게 되었다.¹²⁾

8) 참고 롬 1:20

9) 롬 2:4

10) 창 6:6

11) 창 3:17

12) 창 6:1-5

제 3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또 스스로 사랑과 자애이시기도 한 자비의 주께서는 그의 무한한 호의로¹³⁾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자 하여, 그 죄에 합당한대로¹⁴⁾ 완전히 내어쫓고 삼키며 파멸시키지 않으셨고, 자비와 인내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시어¹⁵⁾ 자기에게로 돌아와 버렸던 순종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¹⁶⁾ 그리고 그는 마치 그들로부터 숨으시려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침묵을 지키며,¹⁷⁾ 그들이 자기들의 탐욕스런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도록¹⁸⁾ 법도 없고¹⁹⁾ 질서도 없으며 그의 말씀을 통한 교화도 없이 버려두시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을 구하고 찾아 발견하여²⁰⁾ 그를 알고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기에 충분할 만한 증거를 주셨다.²¹⁾

왜냐하면 그는 매우 확실한 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끔 각처, 모든 장소와 모든 사물들 속에 자신의 기장과 표상(ensigns and emblems)을 달아 두심으로써 이런 최고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는 자신의 위대하심을 그토록 분명하게 높이 드러내셨으며, 세상의 모든 곳, 하늘과 땅 위에 그

13) 롬 2:4

14) 참고 창 8:21

15) 롬 2:4

16) 참고 행 17:30

17) 참고 롬 1:20; 행 14:16

18) 롬 1:24

19) 롬 2:12 이하.

20) 행 17:7

21) 롬 1:20, 28

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영원함이라는 영광을 기록해 두신, 아니 새겨두신 것이다. 따라서 성 바울이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조차 아무런 증거 없이 인간을 떠나신 적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다.²²⁾ 하늘에 있는 것들로부터 땅의 중심에 있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은²³⁾ 모든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요 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며, 발견한 후에는²⁴⁾ 그토록 선하고 능하며, 지혜롭고 영원한 주님께 마땅한 경배를 돌리게끔 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응당 각 (피조물)은, 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이러한 추구를 돕는 것이다.²⁵⁾ 왜냐하면 노래하는 작은 새들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며,²⁶⁾ 들짐승들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²⁷⁾ 자연(elements)은 그의 임재 하심에 떨어,²⁸⁾ 산들은 그의 음성에 메아리치고 강들과 샘물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부드러운 눈길을 던지며²⁹⁾ 약초들과 꽃들은 그 앞에서 기뻐 웃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그를 찾기 위해 먼 곳으로 가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 속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양되고 보호받는다는 데에서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³¹⁾

22) 행 14:17

23) 참고 롬 1:20, 창조 때부터

24) 행 17:17

25) 참고 시 19:4, 벌게이트 역

26) 참고 시 104:12

27) 참고 시 147:9

28) 시 114:7

29) 시 98:7-8

30) 행 17:27

31) 행 17:28

제 4 절

그의 무한한 선함과 자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³²⁾ 그는 우리가 바로 앞서 기술한 그런 표상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선택하신 뜻과 값없는 은혜로 이 땅의 열방들 중에서 친히 택하신 어떤 한 민족을 통하여 자신의 목 소리를 들리게 하셨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하나님은 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그가 어떤 분이심을 보이시고, 그의 놀라우신 행적을 통하여 그가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선포하셨다. 그는 이들을 억눌리고 압제당하던 애굽 왕 바로의 예속에서부터 이끌어 내어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셨다. 그는 이들이 도망치는 길에서 마치 그들 중 하나인 것처럼 밤낮 그들과 동행하였다. 그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는 그들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또한 마치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가 아무 것도 아닌 듯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불리도록 하셨다.³³⁾ 그들이 다른 주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리하신 것이었다.³⁴⁾ 그리고 이러한 언약은 친히 주신 약속(testament)과 증거(testimony)와 같은 참된 도구들을 통해 확증되고 전수되었다.

제 5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백성은, 그들의 저주스러운 바탕을 드러내고 그들이 진정 그 조상 아담이 가진 사악함의 상속자임을 보여주었다.

32) 롬 1:19

33) 출 5:1

34) 출 20:3

이들은 이런 것가지 [하나님의] 충고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는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각인된 그의 창조의 솜씨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작품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모두가 다 빛에 대해 눈이 멀었고³⁵⁾ 교훈에 귀가 멀었으며 계명에 대해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말았다.

물론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선한 것들과 유익한 것들을 보고서 그 뒤에 감추어진³⁶⁾ 은인(benefactor), 곧 이 모든 선함의 근원이 되는 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³⁷⁾ 하지만 참된 하나님께³⁸⁾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대신,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망상이³⁹⁾ 허영과 거짓으로 상상해 낸 것들을 따라 자신들을 위하여 한 신을 고안해 내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들의 무모함과 교만함이 꾸며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많은 신들을 지어 내었다. 그리하여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을 위해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 내지 않은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배신에 능숙한 뽀쟁이와 같이 우상숭배가 널리 퍼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고, 스스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⁴⁰⁾ 이들에게 모양과 이름과 존재를 부여하게끔 하였다.

35) 롬 1:21 하반절

36) 롬 1:20

37) 행 14:17

38) 롬 1:25

39) 롬 1:22

40) 롬 1:23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비록 그들이 주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보내신 말씀과 명령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앞에서 믿음을 거짓되게 하였고(falsified), 지각없이 그에게서 멀어졌으며, 그의 율법을 어기며 멸시하였고, 그것을 혐오하며 이를 따라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외국인들이 되었고 방탕한(dissolute) 이들처럼 다른 신들을 좇았고 이방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분명하고, 확실하며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이 세워지고 확증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있어, 양 진영 사이를 오가며 중보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런 존재가 없다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노와 분 아래 살 수 밖에 없으며, 사람들이 빠져있는 저주와 비참함과 혼란으로부터 건져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가 아니었다면 황폐하고 파괴되어 비참하였을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제 6 절

또한 처음부터 이 세계는 아담에게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타락 후 아담이 보여준 무절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조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다.⁴¹⁾ 이것은 동정녀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

41) 창 3:15

탄의 세력을 쳐부수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후 이 약속은 더 온전한 형태로 갱신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때였다.⁴²⁾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리라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복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약속이 같은 모양 같은 말로 이삭에게 갱신되었으며,⁴³⁾ 그 후에도 자주 선포되었던 바, 여러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 반복되고 확증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그리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나실 것인지와 어떤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광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실 것인지, 그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구원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인지에 관해 분명하고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첫 번째로 [그가 누구에게서 나실 것인지에 관하여], 어떻게 그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미리 말씀되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희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⁴⁴⁾ 시간은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바, 바로 선한 야곱이 이렇게 말한 때이다. “홀이 유다의 계통을 떠나지 아니하며, 다스리는 권세(government)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보냄 받을 자기 오시기까지 할 것인데 (until the coming of the One who is to be sent), 열방들의 열망 역시 그러할 것이다”(the same is the expectation of the nations”).⁴⁵⁾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42) 창 12:3

43) 창 26:24

44) 사 7:14

45) 창 49:10

오심으로써 확증되었다. 왜냐하면 로마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권력과 통치권을 빼앗은 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삼십칠년 전 그들 위에 헤롯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에돔사람 안티파터였고, 어머니는 아랍인이었으므로 그는 외국인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사도, 통치자도, 법을 정하는 자도 없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다니엘에는 칠십주간이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또다른 시간계산이 나온다.⁴⁶⁾ 그가 출생할 장소는 미가서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는 말하기를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수천의 유다 마을 중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에게로 [=나를 위해] 나올 것이며, 그의 오심은 영원의 모든 날 동안 이어질 것이다.⁴⁷⁾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담담할 모든 고난과 우리의 구속을 위해 겪어야 할 죽음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사야와⁴⁸⁾ 스가랴가⁴⁹⁾ 이런 점들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그의 부활의 영광과⁵⁰⁾ 그 나라의 본질⁵¹⁾ 그리고 그가 백성에게 가져다 줄 구원의 은혜⁵²⁾— 이런 것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스가랴가 충분히 다루었다.

제 7 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선포되고 증거된 바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위안이 되었

46) 단 9:24. [개역에는 “칠십 이레”로 되어 있다—역자 주]

47) 미 5:1, 별개이트 역에 따른 본문

48) 사 53:2 이하

49) 속 12:10

50) 사 26:19

51) 사 25:8; 35:1, 7; 62:3; 렘 3:17

52) 속 9:9

는데, 그들은 이 약속들에 대한 그들의 소망에 양분을 주고, 힘을 더하며, 이 소망을 간직하고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보이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였다. 이들 중 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이 이 약속의 성취를 고대하였던 바,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음과 영으로 이해하고자 애쓰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온갖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확증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수많은 의식들, 정결예법들과 제사를 담고 있는 기록된 율법을 주신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게 될 위대한 축복들의 비유요 그림자들인 바, 그 속에 표현된 진리를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 뿐이었다. 율법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으므로, 율법은 다만 선생의 역할처럼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며 그에게로 인도함으로써 그를 지시할 수 있을 뿐이며⁵³⁾, 이 그리스도께서, 성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⁵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셨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왕과 왕자들, 지도자들(captains)을 보내어 그들을 대적들의 권세에서 구출하도록 하였고, 그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며, 번영의 통치를 베풀도록 하였고, 그 훌륭함으로 인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유명한 이들로 만드셨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실 그 분에게서 받아 누릴 위대한 기적들을 미리 맛보아 알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기간이 다 되었을 때에, 이 위대한 메시아, 그렇게 약속하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는 완전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는데 필요

53) 갈 3:24

54) 롬 10:4

한 모든 일들을 완수하셨다.⁵⁵⁾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바로 그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읽게 될 책 (신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시된 내용들이다. 이 책은 우리가 진리와 헬라어의 문체를 따라 모든 심혈을 기울여 충실하게 번역하였는데, 이로써 불어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 남녀가 그들이 순종해야 할 율법과 그들이 따라야 할 믿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제 8 절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할 모든 것들의 절정=1543]

그리고 이 책은 구약과 대조하여 신약이라고 불리는데, 구약은 신약으로 계승되며 이어져야 했던 만큼 약하고 불완전한 것이었기에 폐지되고 파기되었다. 이 새롭고 영원한 언약 (the new and the eternal testament) [영역에 괄호로 covenant라 첨가하였는데, 이는 신약(新約)에서 ‘약(約)에 해당하는 testament/testamentum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신약의 의미를 풀어서 쓴 것이다—역자 주]⁵⁶⁾은 낡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언약을 비준하고 확증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는 첫 언약 아래 남아있던 모든 죄(prevarications)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완전한 사죄를 이루셨다.⁵⁷⁾

성경은 이를 복음, 곧 새롭고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⁵⁸⁾ 우리가

55) 갈 4:4

56) 히 9:15

57) 히 9:15

양자됨을 통해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고 선포되어 있다.⁵⁹⁾ 따라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 평화, 의로움, 성화, 구원 및 생명 모두를 그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분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로 오르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신 분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변호자/보혜사요 우리를 위해 영원히 제사를 드리는 분이요, 아버지 우편에 왕으로 앉으사 모든 것의 주인이요 지배자가 되셨는데,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일은 모든 천사들, 족장들, 예언자들과 사도들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의도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 9 절

구약에서 메시야가 그렇게 자주 예언자들의 증거를 통해 약속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다른 이가 아니라 그가 바로 오실 자요 기다려야 할 자이신 것으로 선포되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이 점에 관한 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천사들, 예언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시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에 거슬러 거역하고 반역하지 않는 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우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친 음성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이는 분명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다) 말씀하시

58) 마 16:16

59) 갈 4:5

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⁶⁰⁾ 성 요한 역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있는 위대한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였다.⁶¹⁾ 천사 가브리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⁶²⁾ 또한 사실상 같은 소식이 요셉에게도 전달되었으며, 후에는 목자들에게도 전해져 이들이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가 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⁶³⁾ 또한 이 소식이 한 명의 천사를 통해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의 무리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는데, 이들은 소리를 모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였다.⁶⁴⁾ 그 후 시므온은 예언의 영을 따라 이 소식을 장엄하게 고백하였는데,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놓아주시는도다”라고 헬라어의 직설법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우리 개역과는 달리 칼빈은 청유의 명령형으로 옮기고 있다—역자 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⁶⁵⁾ 세례요한 역시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해 올바르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⁶⁶⁾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도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선포하였는데, 이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인

60) 마 3:17; 17:5

61) 요일 5:6

62) 눅 1:31 이하

63) 눅 2:10 이하

64) 눅 2:13 이하

65) 눅 2:25 이하

66) 요 1:29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미리 말했던 것들이었다.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증인으로 정해 놓으신 사람들 또한 자기들의 글을 통해 이를 충분히 보여주었던 바, 이는 이를 읽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바와 같다.

이 모든 증거들은 매우 훌륭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통일된 생각들을 통해 가장 분명한 진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들에는 이런 조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 천사들, 예언자들과 사도들만이 아니다. 그가 행하신 위대한 사역을 또한 그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낸다. 아픈 자, 저는 자, 눈 먼 자, 귀먹은 자, 병어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들린 자, 심지어는 죽었다가 그에 의해 다시 일으킴을 받은 까지도 그 능력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는 생명을 주었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영어에는 그냥 'he'라고 되어 있음]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⁶⁷⁾ 심지어는 악한 자들과 그의 영광을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진리가 가진 힘에 이끌려 그를 고백하고 [그의 영광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곧 가야바,⁶⁸⁾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⁶⁹⁾ 그렇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증거는 불려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거부하셨기 때문이다.⁷⁰⁾

요컨대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다. 그의 명령으로 바람이 멈추었고, 풍랑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으며⁷¹⁾, 물고기는 그 뱃속에서 두 드라크마를 내어 놓았고⁷²⁾, 돌들이

67) 요 5:36; 10:25

68) 요 11:49

69) 마 27:19

70) 막 1:25

(그를 증거하기 위해) 부서지고,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로 갈라졌고 해가 어두워졌다.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⁷³⁾ 하늘에나 땅 위에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주님이며 주권자(Master)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의 위대한 사자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신약 속에(in this Testament) 선포되었고, 드러났으며, 기록되어 입증되었다(signed).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마치 상속자들에게 유언하듯) 이것[그의 약속/유언 (his Testament: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testamentum은 헬라어 디아테케와 마찬가지로 유언을 의미하기도 함-역자 주)]을 실행하라는 그의 뜻을 우리들에게 선언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무런 차별 없이⁷⁴⁾, 남자나 여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냐 자유인이냐, 스승이나 제자나, 성직자나 일반인이냐, 히브리어를 쓰거나 헬라어를 쓰거나 불어를 쓰거나 혹은 라틴어를 쓰거나 아무 상관없이, 이 유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어느 누구도 이 유언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보냄을 받으신 그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참된 모습 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 주어지는 선물(what is presented to him)을 받는 것이다.

71) 막 8:26과 병행구

72) 마 17:24

73) 마 27:51 이하

74) 롬 2:11

제 10 절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누구라도 이 언약/신약(this Testament)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며, 더럽힐 수 있겠는가? 이 언약이 지극히 마땅하게 우리의 것이 되었고, 또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이것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대한 복들과 약속들 및 그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영광과 축복에 대해 무지할 수 밖에 없다면 말이다. [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금하셨는지도 모르며,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규정(법규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복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며 헛될 뿐이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복음이 없이는 부유함이 가난이 되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 될 뿐이다. 힘은 연약함이 되고, 인간의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⁷⁵⁾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며⁷⁶⁾,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⁷⁷⁾, 곧 천국의 시민들이 되었고⁷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⁷⁹⁾ 그리스도를 통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며,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매마른 자가 위로를 받으며, 의심하는 자가 확신을 얻고, 종들이 자유를 얻는다. 복음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다. 이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75) 갈 4:6

76) 참고 롬 8:29

77) 엡 2:19

78) 빌 3:20

79) 롬 8:17

며⁸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로서, 신실한 자들을 죄에서 놓이게 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 주고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에 매이도록 하여⁸¹⁾ 그 문을 닫아 버린다. 복음을 듣고 지키는 모든 이들은 복된 자들이다.⁸²⁾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비참하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오 남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를 듣고 배우도록 하라. 분명 무지한 자는 그 무지함 속에서 멸망할 것이며, 눈먼 자를 따라가는 눈먼 자는 구덩이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⁸³⁾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뿐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다. 복음을 듣고 알게 될 때 산 믿음이,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한 생생한 사랑과 더불어 주어진다.⁸⁴⁾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복음을 듣고, 보고, 읽고 간직하는 일을 저주하고 비웃는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 이들은 갇힌 수단을 다하여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은 것이라면 무엇이건 땀과 몸과 목숨과 혹은 명예도 아끼지 않고 좇아갈 것이다. 물론 이는 모두 그토록 헛되고 비참하며 정함이 없는 목숨을 가졌을 뿐인 이 불쌍한 육신(this wretched body)을 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하며 측량할 수 없는 복됨, 낙원의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저급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80) 롬 1:16

81) 마 18:18

82) 눅 11:28

83) 눅 6:39

84) 마 22:37-39

구사하는 사람은 그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고통과 수고를 감수한다.⁸⁵⁾ 또한 가장 탁월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지 바람과 연기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밤낮으로 자신의 정신을 고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초월하며 그가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알리기를 기뻐하셨던 바 하나님의 신비에까지 파고드는 이 신적 지혜를 공부함에 있어 더 마음을 쏟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 11 절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 거룩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가? 몸의 상처나, 욕설이나, 오명을 쓰는 일이나, 혹은 세상 명예를 갖지 못하는 것인가?⁸⁶⁾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같은 길을 가신 것이며,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우리 역시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사람들에게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며, 굴욕당하거나 부인당하는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예를 얻고, 상을 받으며, 영광을 얻고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추방을 당하거나, 권리를 상실하거나 재물과 부를 빼앗기는 일을 겪는가?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다 해도 이 세상이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⁸⁷⁾, 설사 세상에서 아예 쫓겨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고 궁핍해질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넉넉히 먹이실 만큼 부유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가난함을 따르도

85) 전 1:17

86) 참고 롬 8:35

87) 시 24:1

록 하지 않으셨는가?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여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고 하자.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소유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그가 축복으로 바꾸어 놓지 못할 만한 정도로 비참한 일, 혹은 거룩해지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 너무 사악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뀔 수 없을 정도의 일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⁸⁸⁾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가 우리를 대항하는 상황에 처해도 위로를 잃어버리지 말자. 왜냐하면 위에 계신 주께서 그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모의와 시도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라는 약속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다.⁸⁹⁾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눈 앞에서 죽거나 사라져 갈 때라도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낙담하지 말자. 왜냐하면 터툴리안이 올바르게 말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되어 왔으며 또 마지막 완성 때까지 그럴 것처럼, 순교자의 피란 바로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⁹⁰⁾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바 모든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을 기다린다면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심판으로 인해 그를 대항하는 인간의 모든 술수는 부수어지고, 없어지며, 뒤집어 질 것이다. 이 때는 바로 우리가 지금 소망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위엄 중에 다시 나타나

88) 롬 8:28

89) 시 2:4

90) 터툴리안, 변증 21, 25; CC 1,127: Discipuli vero ... Romae postremo per Neronis saevitiam sanguinem Christianorum seminnaverunt ("제자들 역시 결국 로마에서 네로의 포악함에 의해 기독교의 피를 씨로 뿌리게 되었다"-한역 역자 추가). 또한 같은 책 50, 31, CC 1, 171.

실 때이다. 그 때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 이 위대하신 왕의 심판 대 앞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 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지킨 이들은 그의 참된 자녀들로 그의 오른 편에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믿음의 성취, 곧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정죄당할 때에도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하지만 이 거룩한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한, 부패하고, 반역하며, 저주받은 이들과 이와 같이 그들의 영예와 부와 높은 지위에 집착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하며 낮아지기를 원치 않았던 이들, 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식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잊어버린 사람들, 이들은 그의 원편에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을 처벌을 받아 쫓겨날 것이며,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댓가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⁹¹⁾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선물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또한 복음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며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해진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일들을 완전히 말씀하셨다고 선포할 때, 낙원의 보물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앞에 열려진 것이며,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나고 영생 자체가 계시된 것이라는 점을 무엇보다 명백하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며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구원의 처음이요, 중간이며 마지막으로 세우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⁹²⁾ 그[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으로서 제물로 바쳐졌지만,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는 않으셨다.⁹³⁾ 그는 또한 때

91) 참고 마 25:31 이하

92) 요 17:3

우 세심한 관심으로 그의 양들을 돌보았던 사려깊은 목자 야곱이다.⁹⁴⁾ 그는 영광을 누릴 때에도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낮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개의치 않고 형제라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선하고 동정심 많은 형제 요셉이다.⁹⁵⁾ 그는 위대한 제사장[sacrificer]이요 감독[bishop]인 멜기세덱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⁹⁶⁾ 그는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해 자신의 율법을 우리의 심비에 쓰신 권위있는 율법의 반포자 모세이다. 그는 또한 신실한 지도자요 안내자로서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인 여호수아이다. 그는 그의 손으로 모든 반역의 세력을 정복한 고귀한 승리의 왕 다윗이다. 그는 그의 왕국을 평화와 번영으로 다스린 웅대하고 승리에 찬 솔로몬 왕이다. 그는 그의 죽음으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한 강하고 능력있는 삼손이다.

제 12 절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 그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었고⁹⁷⁾ 우리를 다시 사서 건지기 위해 스스로 팔리셨으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정죄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저주가 되셨으며⁹⁸⁾,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속죄의 제물(oblation)이 되셨다.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에 의해 굳은 것이

93) 창 22

94) 창 30

95) 창 45

96) 히 7:23

97) 고후 8:9

98) 갈 3:13

부드러워지고, 진노가 잠잠해지며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안심되고, 무시함이 오히려 무시되고, 빛이 청산되며, 노동은 가벼워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며, 불행이 행복으로, 어려움이 수월함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분열이 하나됨으로, 무명한 자가 고귀한 자가 되며, 반역이 다스려지고, 위협이 위협을 당하며, 복병들이 드러나며, 습격이 공격을 당하며, 무력이 뒤로 밀려나며, 싸움이 공격되며, 전쟁이 무력화되며, 맺힌 것이 갚음을 받고, 괴로움이 괴로워하며, 저주함이 저주를 받고, 심연이 심연 속으로 빠지며, 지옥이 못박힘을 당하고, 죽음에 죽으며, 죽을 것이 영생이 된다. 말하자면 자비가 모든 슬픔을, 친절함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을 다 삼킨 것이다. 우리와 싸움에 있어 마귀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찌르는 사망의 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익으로 바뀔 수 있는 훈련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와 함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오 지옥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⁹⁹⁾ 따라서 우리는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며¹⁰⁰⁾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앉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우리 생활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나라나 장소, 상황, 입을 것, 먹을 것 [원문에는 “고기”- 역자 주] 등 이 모든 일에 있어 만족한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위안을 얻고, 슬픔 중에도 기뻐하며, 욕을 당할 때에도 즐거워하고, 가난함 중에서도 넉넉하며, 헐벗었을 때에도 따뜻하고,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죽음 속에서도 살아있다.

여기에 우리가 이생에서 이해하고 배워야 할 모든 지혜가 있는데, 어떤 천사나¹⁰¹⁾ 사람이라도, 살았던 죽었던 아무 것도 더하거나 빼지 못

99) 고전 15:55

100) 갈 2:20

할 지혜이다.¹⁰²⁾ 이것이 우리의 이해에 제동을 걸고 한계를 그어야 할 지점이며, 거기에 우리의 것을 일체 섞지 않고 거기에 더해질 법한 어떤 교리라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진 것 외에 낱말 하나라도 더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 13 절

그리고 여러분 왕과 왕자와 그리스도인 영주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악한 자를 처벌하고 평화 중에 선한 자를 지키도록¹⁰³⁾ 임명을 받은 자들이여, 여러분이 다스리는 땅과 지역과 영지들에서 더없이 유익하고 요긴한¹⁰⁴⁾ 이 거룩한 교리를 출판하고, 가르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그의 복음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모든 겸손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섬기게 되는 것이 그의 당연한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제 14 절

오 스스로를 가난한 자들의 감독이요 목사라 부르는 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풀이 있는 초장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언어로 거룩한 복음을 읽고, 토론하며 해석하는 일을 금지당하거나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

101) 갈 1:8

102) 신 4:2

103) 롬 13:3 이하

104) 딤후 3:16

도록 주의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¹⁰⁵⁾ 이런 이유로 그가 그의 사도들과 종들을 온 세상에 보내고 그들에게 모든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모든 언어로 모든 피조물들에게¹⁰⁶⁾ 설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¹⁰⁷⁾ 빛진 자들이 되게 하여 아무도 그들의 가르침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의 대리자(vicar)요, 계승자요, 그를 본받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책무 역시 동일합니다. 양무리를 돌보며¹⁰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서 그들의 영혼을 찾으실 것이라는 선고가 이미 내려져 기록되어 있습니다.¹⁰⁹⁾

빛이신 주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그의 성령으로, 이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눈먼 자를 밝혀주며 모든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에 그의 진리가 다스리게 하여 온 세상이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이며, 복음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So be it).

105) 마 28:19 이하

106) 행 2:4, 8

107) 롬 1:14

108) 행 20:28

109) 겔 34:10